

목포 삼학도에 5성급 관광호텔 들어선다

시, 옛 석탄부두 부지에 '체류형'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9~10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목포시가 삼학도의 옛 석탄부두 부지 등을 유원지로 조성한다.

25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일 '목포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다.

시는 오는 6월 4일까지 사업 참가의향서를 접수하고, 8월 사업계획서 접수 등을 거쳐 9~10월 중 평가위원회를 열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 전남도 승인 등을 거쳐 내년에 삼학도 유원지 조성공사를 착공할 방침이다.

지난 1960년대 후반 삼학도 주변 간척으로 조성된 삼학도 석탄부두는 물량감소, 삼학도 복원화사업, 항만기본계획 등에 따라 항만기능이 폐쇄된다.

시는 목포 산업화의 거점이었던 삼학도를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시키기 위한 이번 공모에서 국제규모 행사 유치 가능한 컨벤션시설을 포함한 5성급 이상 관광호텔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오는 2028 세계 섬 엑스포 유지를 추진 중인 시

의 입장에서 대규모 국제행사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설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시의 이 같은 구상은 시민의 의견과도 궤를 같이 한다.

지난 2020년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삼학도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시가 실시한 인근 주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에서도 단순 공원보다는 체류형 관광인프라 조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시는 체류형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해 삼학도 전체 면적 57만4000여㎡ 중 옛 해양부두에서 옛 석탄부두로 이어지는 육지부 11만여㎡와 공유수면 9만5000㎡를 유원지 시설로 결정하고, 5성급 이상 관광호텔을 비롯해 바다전망데크, 공원, 녹지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공공성 확보를 위해 조성면적의 50%를 공공 시설로 만들어 이용객들에게 무료로 개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유원지 시설과 연계하기 위해 삼학도 복원화 사업으로 이미 조성된 대·중·소 삼학도



호텔 등 유원지가 조성될 목포 삼학도 전경.

(목포시 제공)

외에도 평화의 숲, 넬스만델라 기념공원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삼학도는 이만영 여사의 '목포의 눈물'에서 언급되면서 목포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인지도가 높은 공간이다"면서 "산업화의 거점으

로 역할을 다 한 삼학도가 앞으로는 관광지로서 명성을 떨치면서 목포의 관광산업을 일으키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민자 유치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kwangju.co.kr

완도사랑상품권 카드형 출시

군, 내달 14일부터

완도군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완도사랑상품권 카드형인 '완도사랑카드'를 6월14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완도군과 한국조폐공사는 지난 24일 완도사랑카드 발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완도사랑카드는 총 50억원 규모의 충전식 체크카드 형태로 발행된다. 만 19세 이상 거주지 제한 없이 한국조폐공사 앱을 통하거나 농·축협 창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

완도군 관내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50만원이다. 소비자에게는 10% 할인과 소득 공제 30%의 혜택이 돌아간다.

카드형 상품권이 출시되면 판매 대행점을 따로 방문할 필요 없고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등 지류 상품권의 불편한 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부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발행 비용과 판매·환전 수수료 예산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상품권에 비해 사용이 편리해진 완도사랑카드 사용 생활화로 착한 소비운동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주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kwangju.co.kr

'퀸제누비아호' 선행, 코로나에도 멈추지 않는다

선상 플리마켓 수익금 목포 성덕원에 전달...헌혈 캠페인도 동참

'목포-제주' 항로를 다니는 씨월드고속훼리(주) 소속 퀸제누비아호 선상에서 열린 플리마켓 수익금이 보육시설에 전달돼 화제다.

씨월드고속훼리 임직원들은 지난 24일 목포 성덕원(보육시설)을 찾아 수익금과 기부도서를 전달했다.

선사는 매년 5월에 소외계층 시설원 어린이를 초청, 제주 여행에 나섰지만 코로나19로 행사 진행에 어려움이 많아 연안여객선사 최초로 선상 플리마켓을 열었다.

지난달 30일과 지난 4일 두 차례에 걸친 플리마켓과 도서기부 캠페인은 단순히 물품을 사고 판매하는 것이 아닌 이웃에게 온정의 손길을 베풀기 위한 기부·나눔문화 확산의 장이었다는게 선사측의 설명이다.

퀸제누비아호 고일권 선장은 "매년 씨월드고속훼리에서는 가정의 달 5월에 소외계층 관내 시설원 어린이를 초청해 제주 여행을 실시했으나 코로나로 행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던 중 플리마켓을 열게 됐다"며 "앞으로도 나눔·기부 문화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씨월드고속훼리는 앞서 지난 17일에도 제주 사업본부에서 코로나 여파로 인한 혈액부족 사태를 해결하고자 '사랑의 헌혈 캠페인'에 동참했다.



씨월드고속훼리 임직원들이 지난 24일 목포 보육시설인 성덕원을 찾아 수익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씨월드고속훼리 제공)

한편 새벽1시 목포발-제주행 퀸제누비아호는 씨월드고속훼리(주)에서 운항중인 국내 최대·최고 호화 명품 유람형 로팩스 선박이다.

국내에서는 이미 많은 고객으로부터 안정성과 규모, 감각적인 인테리어 호평을 받으며 수

항 중이다. 지난 2월에는 이를 인정받아 제주도민의 희망과 염원이 담긴 코로나19 백신 첫 출하분을 수송하기 위한 운송 수단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해남정수장 ICT 접목 현대화 사업 추진

군, 200억 투입...2023년 완공

해남군이 삼산면 송정리에 위치한 해남정수장을 현대식으로 전면 개량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국비 등 총 사업비 200억원이 투입되는 신축 정수장은 최신식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주민들에게 고품질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신설되며, 수돗물 공급 전 과정과 수질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수질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수돗물 수질관리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현재 실시설계

등을 완료하고,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2020년 수돗물 품질 보고서에 따르면 매월·매분기 실시되고 있는 검사결과 해남정수장 취수원인 삼산천은 수질등급 좋은, 하천수질별 수질등급 '1급수'인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도 가장 깨끗한 수준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해남정수장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면 해남읍 일부를 비롯한 삼산면, 화산면, 현산면 일원 5915세대에 하루 4000㎥ 규모의 최고 수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해남 정수장 전면 개량사업은 무중단 방식으로 시공할 계획으로, 정수장 신축까지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소화할 예정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영암군, 미등록 외국인 자가격리때 비용 지원

영암군이 확진된 미등록 외국인이 자가격리 시 일체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 최초인 이번 지원은 최근 발생한 확진자 8명 모두 이슬람 종교행사와 관련된 외국인으로 시설격리 비용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원활한 격리와 인도주의 차원에서 전격 시행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지난 22일 현대상호사원아파트 선별진료소에 방문한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 미등록 외국인의 자발적 검사 유도와 검사를 제고를 위한 맞춤형 대책임을 상세하게 설명한 바 있다.

군은 이번 지원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 현대상호중공업, 농공단지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밀집한 대형 기업체뿐만 아니라 고구마 농장 등 소규모 단위로 외국인들이 산재한 곳에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이번 지원대책은 미등록 외국인들의 자발적이고 신속한 검사를 유도하고 확진되더라도 비용 걱정 없이 격리될 수 있도록 해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이제는 서울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환자의 마음까지 치유하겠습니다.



코로나19

함께하면 이겨낼수 있습니다

인명병원 지정기간: 2021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 호남유일 보건복지부 지정 안과전문병원 |

밝은안과21병원

노안/백내장/스마일수술

"노안·백내장 수술 후 불편감, 시야장애 등 부차적 증상 없이"

대표전화 062)364-9000 노안·백내장센터 062)365-0080

광주전남 대표 치과병원 **상무스타치과병원**

대표원장 김은규

임플란트 치아교정 보철틀니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58(치평동 1236-3) 타임스타타워빌딩 7층

T. 062-367-8889 FAX. 062-367-8822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 획득

민간 병원 최초 인증기관: 2014.02.05 ~ 2018.02.04

최수진 대표원장 새우리병원

세우리병원 전문 의료서비스, 환자만, 신제품을 쓰는 의료의 필요

보건복지부에서 부여한 인증기관 인증을 받았습니다.

임상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주 화정동 농성역 사거리(농성지하차도 옆) 대표전화 062)603-8000

www.chospital.com

시엘병원

Creation & Love Womens Hospital

시험관아기기술·복강경수술

서구 무진대로 957번(광천동)

대표전화 062.368-1700

신세계안과의원

옛 밝은광주안과

대표원장 김재봉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문의 1566-9988

홈페이지 www.leyeclinic.com 인스타그램 leyeclinic

i 아이안과

라식 라섹 백내장 망막

최광주 | 서정성 | 윤재홍 | 허준 | 박정민 | 박지민 | 정지선 | 김현주

진료분점 062-681-7112 나주점 061-813-2112 영산포점 061-334-7115